<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하나님과 성령님은 돕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상상도 못 하게 돕고 함께해 주셨다.

2. <기도>할 때는 '감동'을 시키며 도우시고, <찬양>할 때는 '찬양의 은혜'를 주시며 도우신다.

3. <하나님의 뜻>대로 '행하는 대로' 도우신다.

4. <하나님의 뜻 안>에서 '만드는 대로' 도우신다. <자기 육>을 '하나님의 뜻'대로 만들고, 그 육을 통해 <영>을 만들어라.

5. <만물>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으면, 만들어 놓았을 때보다 그 가치가 10분의 1, 혹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.

   <사람>도 '만들어 놓은 자'와 '안 만들어 놓은 자'는 수백, 수천 배 차이가 있으니, 생활하면서 <자기 육>도 <영>도 개성대로 좋게, 의롭게 만들어라.

6. <성지 땅, 하나님의 자연성전>을 만들기 전에는 새들도 잘 오지 않는 무가치한 땅이었다. 만들어 놓으니 '60종 이상의 새들'이 날아와서 살고, 사람들도 '70여 개국 나라의 사람들'이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산다.

7. <하나님의 성전>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무가치한 그대로 '원시

인’ 같이 살았다. 지금은 모두 만들어 놓은 차원대로, 그만큼 가치 있게 살고 있다.

8. <만드는 것>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라. <만들어 본 자>만 ‘옛것’과 비교하여 안다.

9. <성지 땅>을 만들어 놓으니, 천 배, 만 배 귀하게 썼다. 만들지 않았다면, 무가치하게 쓰며 ‘원시인의 삶’을 살았을 것이다. 그 땅에 사는 자가 ‘하나님의 구상’대로 만들었으니, 더욱 실감나게 한다.

10. <매일 만들기>다. <한없이 만들기>다.

11. 기도해야, 깨닫고 잘 만들게 된다.

12. 기도할 때 깨달아라. 하나님과 성령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는지 ‘자기 기도’를 들어 보아라.

13.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. <소나무>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, 구상을 받고 수형 잡는 것이 어렵다. 사람도 <자기 만들기>가 환경을 개발하는 것만큼 힘들다. 힘들어도 만들면, 영이 영원토록 받고 살게 된다.

14. 생활 속에서 만들고,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‘전적’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진다.

15. 생활 속에서 ‘목적’을 행하며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.

16. <영적>으로 만들면 ‘영’으로 영원하게 쓰니, ‘육’보다 수천 배 쓰게 된다.

17. 자기를 다양하게, 수백 가지로 쓰도록 만들어라.